

대출 규제에...2금융권에 떠밀리는 자영업자

대부분 7~10 단계 저신용등급 속해 위험 부채 분류

저축은행 등 이자 은행의 2배...경영상태 신용위기 우려

장성에서 포장자재를 제조하는 김모(46)씨는 최근 경기 불황에 사업 형편이 어려워져 광주 수완지구에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약 2억원을 대출받으려 했다. 그러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확대 시행되면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매달 원리금을 갚아나가야 한다는 말을 은행 직원으로부터 들었다. 매달 200만원에 가까운 '거액'이었다. 결국 그는 원리금 부담 상황이 없는 한 저축은행을 찾아 대출 상담을 했다.

광주시 북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모(58)씨는 가게를 옮기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 시중은행을 찾았다가 비슷한 경험을 했다. 새로 영업할 곳이 아직 상업지구로 활성화되지 않은 곳이라 단시일 내에 대출을 기대할 수 없는 박씨로서는 은행 측이 요구하는 매달 원리금 상황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할 수 없이 인근 세마를 금고를 찾았지만 높은 금리가 문제였다. 금리는 연 6%대로, 3%대인 은행 이자의 배에 달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5월부터 지방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애꿎은 서민들의 불편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간간한 대출심사 탓에 은행 문턱이 높아지고 원리금 상황에 대한 부담이 급증하면서 금리가 더 높은 제2금융권의 문을 '어쩔 수 없이' 두드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의 지난 4월 저축은행과 신탁, 세마을금고 등 광주·전남 비은행금융기관의 여신은 기업대출이 둔화했으나 가계대출이 늘어나면서 증가세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일정치 않아서 분할 상환에 대한 부담이 크다"며 "대출 상담을 받으러 왔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귀띔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금융권에서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강화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대출 절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의 '2015년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전체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농림·어업 포함)은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574조5000억원에 이른다. 이처럼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가 큰 이유는 약 63.6%(330조5000억원)가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을 중복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둘 중 하나는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얘기다.

은행권에서는 통상 가게 대출만 받은 일부 자영업자 부채를 질적인 측면에서 위험 채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 자영업자의 약 16%가 저신용등급(7~10등급)

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또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도 2015년 318만명에서 지난해 6월 344만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부채 규모도 282조원에서 348조원으로 늘었다.

문제는 대출을 바라는 자영업자들 대부분이 경기민간 업종에 종사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기준 전국의 자영업자 대출은 부동산업대입 34.4%, 음식·숙박업 10.2%, 도·소매업 16.9% 등 경기민간 업종에 집중돼 있다는 분석이다. 경기민간에 민간의 자영업자들이 비싼 이자에 의존할 경우 신용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원리금 상황이 너무 급작스럽다 보니 서민을 중심으로 대출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의 대출 규제 속도가 너무 빨라 신용위기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원리금 상황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통계청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따라 공식 청년실업자에 청년층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준비자(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와 입사시험 준비생(잠재경제활동인구)을 더해 발표한 '고용보조 지표 3'의 인원은 113만8000명이고, 실업률은 22.6%다.

보고서는 '고용보조 지표 3'에 비자발적 비정규직(45만8000명)과 그냥 쉬고 있는 청년(19만7000명)까지 포함하면 청년 체감실업자는 179만2000명, 청년 체감실업률은 34.2%가 된다고 분석했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남성이 37.1%로 여성(31.4%)보다 높았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 중 남성은 여성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구직활동을 계속하거나 잠시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고, 취업이 힘들어지면서 아예 취업 자체를 포기하고 그냥 쉬는 경우도 많다"고 분석했다.

연령층으로 보면 20~24세의 체감 실업률이 41.0%로 25~29세(27.6%)보다 높았고, 대학재학생(49.1%)이 고졸졸업생(36.8%)이나 대학졸업생(27.5%)보다 높았다.

이 연구위원은 "20~24세와 대학재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고 아직 취업에 대한 생각이 정립되지 않아 그냥 쉬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정부 차원에서 청년고용의 특수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고용보조지표를 개발하고, 체감실업자의 특성에 맞춰 청년고용정책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비자발적 비정규직과 시간 관련 추가취업희망자를 줄이기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이고 일자리 상승 사다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을 줄이기 위해 직업재활 프로그램과 직업훈련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72.03 (-7.03)
- ↑ 금리 (국고채 3년) 1.34% (+0.03)
- ↓ 코스닥 692.94 (-2.67)
- ↓ 환율 (USD) 1173.20원 (-0.20)

8%라던 청년 실업률, 체감은 34.2%

비자발적 비정규직·그냥 쉬 포함 체감 실업자 179만명

"특수성 고려 고용보조지표 개발·고용정책 구체화해야"

현대경제연구 보고서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이 34.2%이고 체감실업자는 179만2000명이라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대경)이 14일 발표한 '청년 고용보조지표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청년층 공식 실업률은 8.0%, 공식 실업자는 34만5000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20~24세와 대학재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고 아직 취업에 대한 생각이 정립되지 않아 그냥 쉬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정부 차원에서 청년고용의 특수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고용보조지표를 개발하고, 체감실업자의 특성에 맞춰 청년고용정책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비자발적 비정규직과 시간 관련 추가취업희망자를 줄이기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이고 일자리 상승 사다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을 줄이기 위해 직업재활 프로그램과 직업훈련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 연구위원은 "비자발적 비정규직과 시간 관련 추가취업희망자를 줄이기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이고 일자리 상승 사다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을 줄이기 위해 직업재활 프로그램과 직업훈련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포스코, 철강사 세계 경쟁력 7년연속 1위

전문기관 WSD 기술·재무 등 평가...현대제철 12위

포스코가 7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로 평가받았다.

14일 포스코에 따르면 세계적인 철강 분석 전문기관인 WSD는 13일(현지시간) 세계 철강사의 경쟁력 순위를 발표하면서 포스코를 1위(총합 점수 8.02점)로 뽑았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이 순위는 것을 방지하는 방호형 구조물이다. 작업자의 추락 방지와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 요인을 제거한 기술로 사업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토대로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력을 해외 시장에 홍보하고, 다양한 국제 전시회에 참가해 제품 수출 등 해외사업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

조정을 하면서 달성한 성과로 더욱 값진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사우디국부펀드 투자유치와 포스코특수강 매각 등 기업구조재편 활동을 비롯해 파이넥스, CEM(압축연속주조압연설비) 등 혁신기술 활용, 현장 엔지니어의 숙련도와 생산성, 월드프리미엄 제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와 원가절감 분야에서 두루 최고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엔저 영향으로 수출 경쟁력이 높아진 일본의 신일철주금에 7.77점으로 2위에 올랐고 세일가스 사용을 통해 에너지비율 경쟁력을 높인 미국의 뉴코어가 7.74점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현대제철은 12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현대·기아차 판매

멕시코서 '폭풍 성장'

5월 7727대 '역대 최다' 경신

현대기아차가 지난 1년 사이 멕시코 시장에서 판매량을 3배 넘게 늘리는 폭풍 성장세를 보였다.

14일 멕시코자동차공업협회(AMIA)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지난 5월 한달간 멕시코 시장에서 7727대(기아차 4610대, 현대차 3117대)를 팔았다.

이는 지난 4월에 세운 역대 최다 판매 기록(7086대)을 한 달 만에 갈아치운 것이다. 현대기아차는 멕시코에서 올해 들어 5월까지 매달 판매 신기록 행진을 이어왔다. 특히 이번 실적은 1년 전인 지난해 5월(2049대)에 비해 3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이같은 실적 호조에 힘입어 현대기아차의 지난달 시장 점유율도 6.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멕시코 판매 순위는 5월 현재 기아차가 8위, 현대차가 10위다.

양사 중 기아차의 약진이 돋보였다. 기아차는 멕시코 진출 첫 달인 지난해 7월 BMW와 벤츠 등을 제치고 단숨에 11위에 오르더니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9위, 4월부터는 마쓰다까지 제치고 8위를 기록하고 있다. 7위인 혼다와의 격차도 4월 2000여대에서 5월에는 1600대 수준으로 좁혔다. 기아차는 지난해 16일부터 멕시코 공장에서 K3 생산에 들어갔다. 여기에 스포티지의 4세대 신형 모델까지 최근 투입됨에 따라 하반기 판매량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지난 7일 미국 피츠버그 몽로빌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6 피츠버그 국제발명품·신기술 전시회'에서 8관왕을 달성한 한전관계자들이 Howard Lim국제심사위원회 의장(맨 왼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전재광>

한전, 美 피츠버그 국제발명전 2년 연속 '대상'

세계 3대 발명전... '항공장에 표시구 설치로봇' 등 출품 8관왕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7일 미국 피츠버그 몽로빌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6 피츠버그 국제 발명품·신기술 전시회'에서 대상과 금상 2개, 특별상 5개를 수상해 8관왕을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피츠버그 국제발명전시회는 미국 최대 규모 국제발명전시회로 스위스 제네바 국제발명전, 독일 뉘른베르크 국제발명전과 함께 세계 3대 국제발명전으로 꼽힌다.

9일까지 이어진 전시회에는 21개국 45개 부문 총 357여점이 출품됐다. 한전은 자체개발한 '항공장에 표시구 설치로봇'

과 '공작물 방호형 Y형 지지물' 2점을 출품했다. 이 가운데 '항공장에 표시구 설치로봇'은 출품작 중 최종 1개 작품에만 수여하는 대상 수상과 특수기술 부문 금상, 특별상 3개를 수상했다. '공작물 방호형 Y형 지지물'은 안전산업 부문 금상과 특별상 2개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한전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상의 쾌거를 달성했다.

올해 대상 수상작은 송전선로 가공지선에 항공 장에 표시구를 설치할 때 사람이 하던 작업을 로봇이 대신하는 신공법으로

안전성과 효율성이 높아 앞으로 전력설비 점검에도 활용돼 시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산업 부문 금상과 특별상 2개를 수상한 '공작물 방호형 Y형 지지물'은 가공송전선로에서 전선 등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방호형 구조물이다. 작업자의 추락 방지와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 요인을 제거한 기술로 사업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토대로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력을 해외 시장에 홍보하고, 다양한 국제 전시회에 참가해 제품 수출 등 해외사업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

전북의 랜드마크호텔 **특별분양!!**

마지막 회사보유분

전주 한옥마을 라마다 @ncore 호텔

RAMADA JEONJU @ncore

10년 수익보장

실투자 **6천만원** 월수익 **100만원**

계약서 발행 2분만에 완판신화!!

1899-8735 NAVER 라마다 전주 검색

2017년 명품의 가치가 증명됩니다

산업환경기기 & 기계부품 제조전문업체

최고를 지향하는 **친환경기업 YHBECO**

www.yhb.co.kr

YHB 이동식 에어컨 | 조리작업장/주방/산업현장 작업효율 증대!! | 체감온도를 낮춰 최적의 작업환경 보장!!

PTB7000 | PTB5000 | PTB-W5000(수냉식) | 업소 주방에 최적

설치 장소: 조리작업장, 주방, 여름캠프장, 골프연습장, 창고작업장, 산업현장, 용접장, 열처리장, 정비소, 고온작업장, 유리작업장, 기계실, 전선서버룸

▶ 쾌적하고 깨끗한 작업공간 연출 | 실내·외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 | 이동이 용이한 바퀴 형태 | 고온 및 습기에 강력

대한민국 우수중소기업 | 대통령 표창 수상기업 | 특별가 공급

전국 50개 지점망 이용 | 24시간 내 A/S | 전국 각 지역 지점/대리점 모집

필터 교체가 필요없는 집진기

YHB (주)YHBECO / 주식회사 YHB / (주)YHB 토탈서비스

본사 및 영업본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동테크노타운 12차 501호 ☎ 02-2029-6400 / FAX 02-2029-6404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7번로 74(오신동) ☎ 062-952-6633 | **익산공장** 전북 익산시 석암로1길 41(용정동) ☎ 063-835-4771
www.yhbeco.com / www.yhb.co.kr E-mail: shh@yhb.co.kr / eco6400@hanmail.net